



김철수빵

독서지도안

김철수빵



《김철수빵》은 설거지도 하고 싶고, 빵도 만들어보고 싶은 아이의 바람을 한껏 담아 놓은 그림책이다. 철수 생일날 엄마는 큰 맘 먹고 철수와 함께 빵을 만들기로 한다. 드디어 철수의 소원을 이루어지는 날이다. 어른들에게는 별 대수롭지 않은 일일지 모르지만 철수에게 빵을 완성하는 일은 큰 모험이다. 하지만 우리 생활 속에서 시선만 새롭게 가지면 아이들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도전이다. 《김철수빵》은 모든 공정에 대한 경험을 하나하나 겪어나가면서 새로운 성취에 다가서는 이야기로, 아이들에게 새로운 도전이 흥미진진한 일이라는 것을 알려 준다.

조영글 지음

주제	내가 할 수 있는 집안일을 실천하기
권장 차시	6차시
대상 학년	1~2학년
관련 주제어	도전, 성공, 성취감, 자신감, 창의성, 차례, 과정, 감정 변화, 요리, 집안일
교육 과정 연계	통합
	[2즐03-02] 가족이나 친척이 함께 한 일을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한다. [2즐03-04] 가족 구성원이 하는 역할에 대해 놀이를 한다.
작성	국어
	[2국01-02] 일이 일어난 순서를 고려하여 듣고 말한다.
	[2국02-04] 글을 읽고 인물의 처지와 마음을 짐작한다. [2국05-02] 인물의 모습, 행동, 마음을 상상하며 그림책, 시나 노래, 이야기를 감상한다.
작성	밀양 송진초등학교 이솜이 선생님

■ 도서 소개 (출판사 책 소개)

생활 속에서의 흥미진진한 도전과 모험

어른들에게는 별 대수롭지 않은 일일지 모르지만 철수에게 빵을 완성하는 일은 큰 모험이자 도전이다. 처음 만들어보는 것이기도 하고 모든 공정에 대한 경험을 하나하나 겪어나가는 일이니 까. 또한 어디 멀리 가서 하는 낯선 도전도 아니고 우리 생활 속에서 시선만 새롭게 가지면 충분히 할 수 있는 도전이라 아이들에게 친숙함을 줄 것이다. 어릴 때 이런 경험이 많은 아이들은 커서도 새롭게 도전하거나 배우는 일에 두려움이 덜할 것이다. 공부 외의 성취감을 다양하게 느끼게끔 해줘야 한다는 면에서 그림책 『김철수빵』은 아이들에게 새로운 도전이 흥미진진한 일이라는 걸을 알려 준다. 도전과 작은 성취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해줄 것이다.

■ 학습 목표

- 인물의 마음을 짐작하며 글을 읽을 수 있다.
- 일이 일어난 차례에 따라 실감나는 표정으로 역할놀이를 할 수 있다.
- 집안일을 도운 경험을 이야기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집안일을 정해 할 수 있다.

■ 수업 준비

아이들은 집안에서 엄마가 하는 일이나 학교에서 선생님이 하는 일에 많은 호기심을 가지고 있다. 호기심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 시도하고 싶어 한다. 아이들이 하고 싶어 하는 일들을 어른들의 입장에서 보면 위험천만한 것들로 가득하다. 또한 아이들의 서툰 일 처리 때문에 정리하며 치워야 할 것들이 귀찮아져서 아이들의 시도를 탐탁지 않게 여기는 경우가 많다.

그림책 속 철수와 엄마도 이런 입장이다. 엄마와 함께 빵 만들기 하는 날을 손꼽아 기다리는 철수와 생일이 되어서야 큰마음을 먹고 허락해주는 엄마. 신이 난 철수는 빵 반죽처럼 부푼 마음을 안고 빵 만들기를 시작한다. 엄마의 입장에서는 모든 과정이 집안일의 연속이지만 철수에게는 모험이고 도전이 된다. 모험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변화무쌍한 철수의 얼굴표정과 요리 과정을 상상해서 펼쳐내는 장면들은 환상과 기대로 가득 찬 아이들의 마음을 그대로 보여준다.

『김철수빵』의 이야기는 일의 과정에 따라 변하는 상황과 그 상황에 맞게 변화하는 인물의 표정을 주의 깊게 관찰하는 활동을 하며 1~2학년 국어과 지도에 활용해 보기를 바란다. 빵 만들기를 통해 도전하고 실천하는 과정에서 성취감을 느끼게 하는 수업 활동과 연계하여 지도하고자 한다. 2학년 여름 교과의 “1. 이런 집 저런 집” 단원의 ‘나도 잘할 수 있어요’ 교과 성취기준과 연계하여 지도하면 좋을 것이다. 이 과정에서 가족 구성원으로서 스스로 도울 수 있는 집안일을 찾아보고 재미있게 실천해본 뒤 반응 모으기 활동을 통해 어른들의 마음과 나의 마음을 되돌아본다면 단순한 집안일 실천뿐 아니라 가족 구성원에 대한 이해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수업 준비물 초콜릿 펜, 빵류(오예스, 후레쉬베리 등), 12색 매직, 점토, 종이 접시, 반죽 생지 또는 이스트를 넣은 밀가루 반죽

■ 학습 과정

읽기 단계	주요 활동	차시
읽기 전	마음 열기 제목과 표지 살펴보기	1차시
읽는 중	그림책 읽어주기	
읽은 후	인물의 마음을 짐작하며 상황에 어울리는 대사와 표정 넣기	1차시
	일이 일어난 차례에 따라 실감 나는 표정으로 역할놀이 하기	2차시
	집안일을 도운 경험 이야기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집안일 실천하기	2차시

읽기 전

1. 마음 열기

■ 세상에 없는 빵 찾기 놀이

- 000빵이라고 말하고 구글에서 000빵을 검색하는 놀이를 해 봅시다.
- 000빵이라고 할 때에는 만든 재료를 가지고 이름을 붙일 수도 있고 생긴 모양을 가지고 이름을 붙일 수도 있습니다.

<모양으로 이름을 붙인 빵 예시>

동빵(있어요)
마스크빵(있어요)
오징어빵(모양, 재료 다 있어요)
별빵(있어요)
돌도끼빵(있어요)
변기빵(없어요)

<재료로 이름을 붙인 빵 예시>

비빔밥빵(있어요)
미더덕빵(있어요)
전복빵(있어요)
시금치빵(있어요)
자두빵(있어요)
다슬기빵(없어요)

2. 제목과 표지 살펴보기

■ 제목 살펴보기

- 김철수 빵은 어떤 빵일까요?

예) 김철수가 만든 빵이요
김철수를 닮은 빵이요

■ 표지 살펴보기

- 앞표지에 나온 아이의 모습을 살펴봅시다. 어떤 장면인가요?
예) 환한 조명 아래 등장하는 연극 주인공 같습니다.
- 어떤 차림으로 무엇을 들고 있나요?
예) 요리사 모자를 쓰고 거품기를 들고 있는 남자아이가 보입니다.
- 어떤 표정인가요? 어떤 모습인가요?
예) 눈빛이 반짝이는 표정입니다.
몸짓에 자신감이 넘쳐 보입니다.
- 무엇을 하려고 할까요?
예) 요리를 할 것 같습니다.
빵 만들기를 할 것 같습니다.
- 뒤표지에 나온 두 사람의 모습을 살펴봅시다. 누가 무엇을 하고 있나요? 어떤 상황일까요?
예) 엄마와 철수 같습니다.
엄마와 철수가 설거지를 하고 있습니다.
철수는 신이나 보이고 엄마는 힘들어 보입니다.
- 뒤표지에 엄마의 말풍선 모양이 저렇게 되어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 케이크를 만들자는 철수의 말을 듣고 화가 난 것 같습니다.
설거지하기 힘들어서 지친 것 같습니다.
철수의 말을 들어주지 않겠다는 뜻인 것 같습니다.

■ 내용 예상하기

- 어떤 이야기일까요?
예) 철수는 자신만만한 태도로 빵도 만들고 케이크도 만들고 싶어 하는데 엄마는 힘들어서 하고 싶지 않은 상황에 대한 이야기 같습니다.
철수가 뭔가를 하고 싶어 하는데 엄마가 말리는 이야기 같습니다.
철수가 혼자서 빵 만들거나 요리하기를 해내는 이야기 같습니다.

읽는 중

1. 책 읽기

■ 함께 읽으며 내용 파악하기

- 오늘 철수와 엄마가 함께 해 보기로 한 것은 무엇인가요?
예) 빵 만들기입니다.
- 엄마가 오늘 빵 만들기를 해 보자고 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 철수의 생일이기 때문입니다.

- 준비물 중에서 눈에 띄는 점이 있었나요?
예) 메뚜기표, 곰돌이표, 좌우목장, 큐트원 이런 상품들 이름을 재미있게 바꾸었습니다.
우리 집 주방에도 다 있는 재료들이었습니다.
머리 묶은 엄마와 김철수가 준비물로 들어간 것이 재미있습니다.
- 재료를 넣고 반죽을 하기 까지 철수의 표정은 어때 보이나요?
예) 혀를 내밀고 볼이 빨갛고 매우 즐거워 보입니다.
요리 재료들을 먹고, 재료로 장난도 치면서 신나 보입니다.
- 재료를 넣고 반죽을 하기 까지 엄마의 표정은 어때 보이나요?
예) 허둥지둥 바빠 보입니다.
눈을 질끈 감고 있어서 힘들어 보입니다.
눈을 동그랗게 뜨고 입을 크게 벌리고 놀라서 소리치는 것 같습니다.
- 반죽을 기다리다 보니 어떤 일이 생겼나요?
예) 반죽이 크게 부풀어 올랐습니다.
철수와 엄마가 반죽에 눌러 찌그러졌습니다.
반죽이 요리 재료랑 도구들보다 커졌습니다.
- 커다란 반죽을 보고 철수가 한 행동은 무엇이었습니다?
예) 자신 있는 표정으로 '행님 주먹'을 날렸습니다.
반죽을 주먹으로 치고 주걱으로 작게 잘랐습니다.
- 작아진 반죽이 다시 커지자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예) 반죽이 오븐 쪽으로 굴러갔습니다.
조리 도구들이 화가 난 표정으로 반죽들과 맞서고 있습니다.
- 반죽들이 멈추자 철수가 한 일은 무엇인가요?
예) 조리 도구들과 철수가 힘을 모아 반죽에게 초코칩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 오븐에서 빵이 구워지길 기다리는 철수와 엄마의 표정이 어때 보이나요?
예) 엄마는 주름살이 늘어났습니다.
엄마는 지치고 힘든 표정입니다.
철수는 혀를 내밀고 귀여운 표정으로 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행복해 보이고 만족한 표정입니다.
- 완성된 빵을 '김철수빵'이라고 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 딸기잼으로 철수의 얼굴 모양처럼 꾸몄기 때문입니다.
김철수가 손수 만든 빵이기 때문입니다.
- 엄마가 빵을 먹지 못하고 쓰러진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 빵을 만드는 일이 힘들어서입니다.
뒷정리할 게 많이 남아서입니다.
설거지를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 비슷한 경험 이야기하기

- 여러분도 철수와 비슷한 경험이 있었나요? 말할 내용을 정리한 뒤 이야기를 나누어 봅시다.

비슷한 경험 나누기			비슷한 경험 나누기		
내가 도전해 봤던 일은?	복음방 만들기		내가 도전해 봤던 일은?	삼거지	
그 일을 할 때 필요했던 준비물은?	계란, 감자, 버터, 밥		그 일을 할 때 필요했던 준비물은?	세제, 두세미	
필요한 도움은?	내(마음)가짐, 다짐)	내용식을 먹고 싶은 마음	필요한 도움은?	내(마음)가짐, 다짐)	강한 비유
	엄마 아빠 선생님 연나, 오빠	복조절		엄마 아빠 선생님 연나, 오빠	동생이 정리를 도와 줬다
그 일을 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20분		그 일을 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30분	
그 일을 할 때 위험했던 점은?	계란을 바닥에 들러는 점		그 일을 할 때 위험했던 점은?	칼 씻는거	
그 일을 하고 난 뒤 내 기분은?	뿌듯하고 더덕고싶다.		그 일을 하고 난 뒤 내 기분은?	힘들었다, 뿌듯했다.	
그 일을 하고 난 뒤 들었던 말 중 기억에 남는 말은?	음~ 맛있게는데?		그 일을 하고 난 뒤 들었던 말 중 기억에 남는 말은?	잘했어	

2. 인상 깊은 장면 이야기하기

■ 소리를 흉내 내는 말, 모양을 흉내 내는 말 찾아 실감 나게 읽어 보기

- 인물의 대사 외에 소리를 흉내 내거나 모양을 흉내 낸 말을 찾아 실감 나게 읽어 봅시다.

<소리를 흉내 낸 말>	<모양을 흉내 낸 말>
쩍쩍	
까~	
좌아아아아	질끈
뚜쉬	짤
삭	빙그르르
피웅	데구루루
까	
땡	

■ 인물의 마음을 짐작하며 실감 나게 읽어 보기

- 그림책을 함께 보며 인물의 표정이나 상황을 통해 마음을 짐작하여 대사를 실감 나게 읽어 봅시다.

<철수의 대사>	<엄마의 대사>
엄마, 오늘은 진짜 내가 해 볼게.	
엄마야, 뭔가 잘못 뒀어.	
엄마 걱정 마. 나한테 맡겨!	그래, 오늘이다. 해 보자.
커져라 행님 주먹!	먹는 거 아니다!
멈춰!	으...
계란 물 발라 버려!	안 돼!
오븐 달아!	엄마가 도와줄게!
엄마, 설거지도 걱정하지마.	보고 싶지 않아.
김철수가 해치울게! 고맙지?	

■ 가장 인상 깊은 장면이나 상황 이야기하기

- 인상 깊은 장면이나 상황을 이야기해 봅시다.

예) 요리 도구들이나 재료가 철수와 엄마보다 크게 표현된 점이 재미있었습니다.

철수는 하나도 힘들어 보이지 않는데 엄마는 힘들어하는 점이 반대되어서 재미있었습니다.

반죽이 커다랗게 부풀어 오르는 장면이 기억에 남습니다.

‘행님주먹’을 날리는 철수의 모습이 인상 깊었습니다.

요리 도구들과 반죽이 겨루기 하는 모습이 재미있었습니다.

요리를 마치고 늪어버린 엄마의 얼굴 모습이 재미있었습니다.

완성된 ‘김철수빵’이 먹고 싶습니다.

설거지를 도와준다는 철수의 마지막 모습이 웃겼습니다.

읽은 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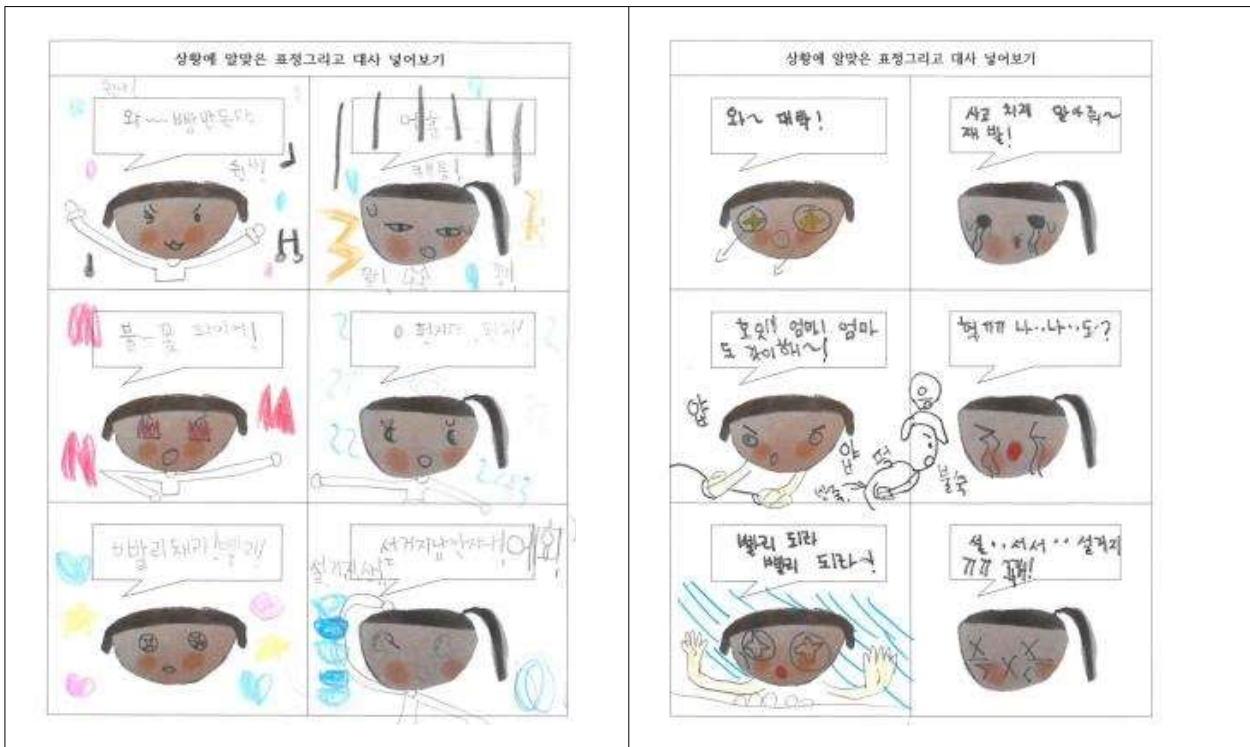
1. 인물의 마음 짐작하기

■ 상황에 따른 인물의 마음 짐작하며 대사와 표정 그리기

- 선생님이 말해주는 상황에 맞게 인물의 마음을 짐작하여 어울리는 얼굴 표정과 대사를 넣어봅시다.

상황

1. 요리를 만들며 재료와 도구로 장난을 치는 철수와 그걸 지켜보는 엄마
2. 반죽을 하고 부풀어 오른 반죽을 작게 자르기 위해 노력하는 철수와 엄마
3. 오븐에 반죽을 넣고 완성된 빵을 기다리는 철수와 엄마



■ 인물의 감정을 살려 “000빵” 만들기

- 내 접시 위에 갓 구워진 빵이 있다고 생각하며 “김철수빵”처럼 “000빵”을 꾸며 봅시다. 이름을 붙여도 되고 생긴 모습에 따라 별명을 붙여주어도 됩니다.

Tip. 철수가 다 구워진 빵에 마지막으로 딸기잼으로 그림을 그려 완전한 “김철수빵”을 완성했듯이 완제품 빵인 오메스나 초코파이, 후레쉬베리, 카스테라 등을 활용하여 그 위에 초콜릿 펜으로 개성 넘치는 표정이나 얼굴 모습을 꾸며 “000빵”을 완성해보게 한다.



- 자기만의 빵을 꾸민 이유를 들어 친구들에게 “000빵”을 소개해 봅시다.
예) 직접 만들어보니 기쁜 마음이 들어서 기쁜 표정을 그리고 “이기쁨 빵”이라고 별명을 지었습니다.
 빵 위에 내 얼굴을 비슷하게 그리고 싶어서 나를 그리고 “김아연 빵”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네모난 빵 모양이 꼭 로봇 얼굴 같아서 로봇 얼굴처럼 꾸미고 별명을 “로봇 빵”이라고 지었습니다.
- 빵에 그림을 그려 완성하니 어떤 기분이 드나요?
예) 제가 직접 빵을 만든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특별한 나만의 빵이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2. 면지 대화 주고받으며 일이 일어난 차례에 따라 실감 나는 표정으로 역할놀이 하기

■ 면지 대화 주고받기

- 왼쪽의 대사는 누구의 말인가요?
예) 철수의 말입니다.
- 오른쪽의 대사는 누구의 말인가요?
예) 엄마의 말입니다.
- 왼쪽의 대사와 오른쪽의 대사를 짝활동으로 하나씩 주고받으며 읽어 봅시다.
예) 왼쪽 친구-철수, 오른쪽 친구-엄마

Tip. 하나씩 돌아가며 읽게 하며 내용상 어떤 대사가 이어져도 큰 무리가 없으므로 순서에 상관없이 읽되 모든 말풍선의 대화를 실감나게 읽어 보게 한다.

■ 면지 대화를 통해 경험 떠올리기

- 우리는 주로 어떤 경우에 철수처럼 이야기할까요?

예) 집에서 만들기를 하고 싶을 때입니다.

요리 만들기 놀이를 하고 싶을 때입니다.

집안일을 해 보고 싶을 때 엄마 허락을 받기 위해 합니다.

혼자서 무언가를 해 보고 싶을 때입니다.

- 그럴 때 엄마는 어떻게 이야기를 해주시나요?

예) 철수 엄마와 비슷하게 말합니다.

힘들다고 안 해주십니다.

다음에 하자고 하고 넘어갑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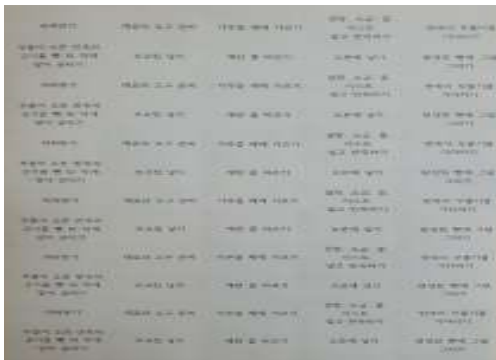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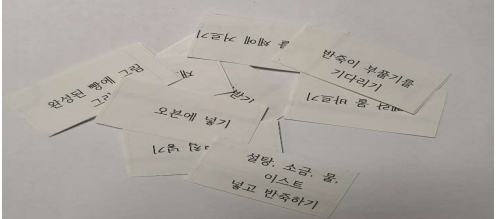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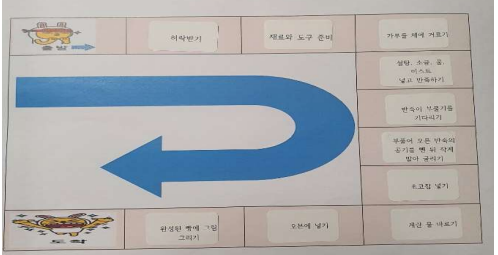
같이 해주십니다.

■ 역할놀이 준비하기

- 등장인물은 누구인가요?

예) 철수와 엄마입니다.

- 철수와 엄마가 함께 한 일을 말판에 차례대로 정리 해 봅시다.

<p>65칸 라벨지에 과정 인쇄하기</p>	
<p>한 세트씩 잘라서 준비하기</p>	
<p>말판에 빵 만들기 순서를 차례대로 붙여 완성하기</p>	

- 일이 일어난 차례에 따라 철수와 엄마가 했던 말이나 행동을 통해 상황을 떠올려 봅시다.

순	차례	상황
1	허락받기	의욕에 찬 철수와 마음을 굳게 먹고 함께 빵 만들기를 결심하는 엄마
2	재료와 도구 준비	자신만만한 표정과 태도의 철수
3	가루를 체에 거르기	재미있어하는 철수와 힘겨워하는 엄마
4	설탕, 소금, 물, 이스트 넣고 반죽하기	겁 없이 도전하는 철수와 그 행동을 초조하게 지켜보며 돕는 엄마
5	반죽이 부풀기를 기다리기	어떻게 될지 궁금해 하는 표정의 철수와 엄마
6	부풀어 오른 반죽의 공기를 뺀 뒤 작게 말아 굴리기	커다랗게 부푼 반죽을 보며 당황하는 철수와 엄마
7	초코칩 넣기	반죽과 대결하는 모습의 철수와 그 상황을 피하고 싶은 엄마
8	계란 물 바르기	손으로 마구 바르려는 철수와 다급하게 도구를 건네주는 엄마
9	오븐에 넣기	요리가 끝나 편안해 보이는 표정의 철수와 엄마 빵을 기다리며 늘어버린 것 같은 엄마와 기대하는 표정의 철수
10	완성된 빵에 그림 그리기	빵을 완성해 기뻐하며 자기만의 빵을 완성해 뿌듯한 철수

Tip. 비교적 표정과 대사를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상황을 정하여 1부터 10까지 차례를 정했으나 상황이나 아이들의 호응에 따라서 과정을 추가 삭제 할 수 있다.

- 짝과 함께 어떤 역할을 할지 정하고 상황에 맞는 대사와 표정 그리고 몸짓을 의논해 봅시다.

Tip. 상황에 어울리는 새로운 대사와 표정을 만들어 내는 것이 좋으나 그 것을 어려워하는 경우에는 그림책 속 표정과 대사를 실감나게 재연하는 것도 괜찮다는 것을 알려준다.

■ 역할놀이 하기

- 짝과 함께 역할 놀이를 연습하고 순서에 맞게 한 팀씩 나와 상황에 맞는 표정과 대사를 하며 역할놀이를 해 봅시다.

역할놀이 하기

1. 팀별로 1번부터 10번의 상황 중 발표하기 원하는 상황을 한 가지 정한다.
2. 팀별로 발표 준비 및 연습 시간을 준다.
3. 빵 만들기 차례대로 발표를 한다.(차례별로 한 팀 또는 여러 팀 발표 가능. 발표할 팀이 없는 경우에는 그림책 속 인물의 대사와 표정을 다시 한 번 다 같이 확인하고 넘어간다.)
4. 발표한 팀의 표정과 대사가 상황에 적절하게 어울리는지를 평가하며 발표를 지켜보도록 한다.

■ 역할놀이 느낌 나누기

- 역할놀이 활동을 한 소감을 이야기해 봅시다.

예) 철수의 역할을 해보니 요리 과정이 모험처럼 신나고 즐겁게 느껴집니다.

엄마의 역할을 해보니 요리 하는 일에 뒷정리가 정말 힘들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도 철수처럼 집안일을 혼자서 해보고 싶어졌습니다.

철수의 엄마처럼 우리 엄마도 같이 빵 만들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 “내가 할게!”하고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일 정해서 실천해보기

■ 집안일을 나 혼자 해 보고 성취감을 느낀 경험 이야기 나누기

- 여러분은 혼자서 집안일을 해 본 경험이 있나요? 그때 어떤 느낌이 들었나요?

예) 혼자서 설거지를 해 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릇을 깨뜨릴까봐 걱정되었습니다.

설거지를 했는데 엄마가 지저분하게 되었다고 다시 설거지를 하셨습니다.

청소를 했는데 힘들었지만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집 앞 가게에 심부름 간 적이 있는데 매우 떨렸지만 하고 나니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 어른들이 아이들 혼자 하지 못하게 하는 집안일 알아보기

- 어른들이 아이에게 못하게 하는 일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예) 날카로운 칼을 쓰거나 가열이 필요한 조리 활동, 무거운 물건을 드는 일, 키가 닿지 않아 위험한 일, 혼자 다니는 일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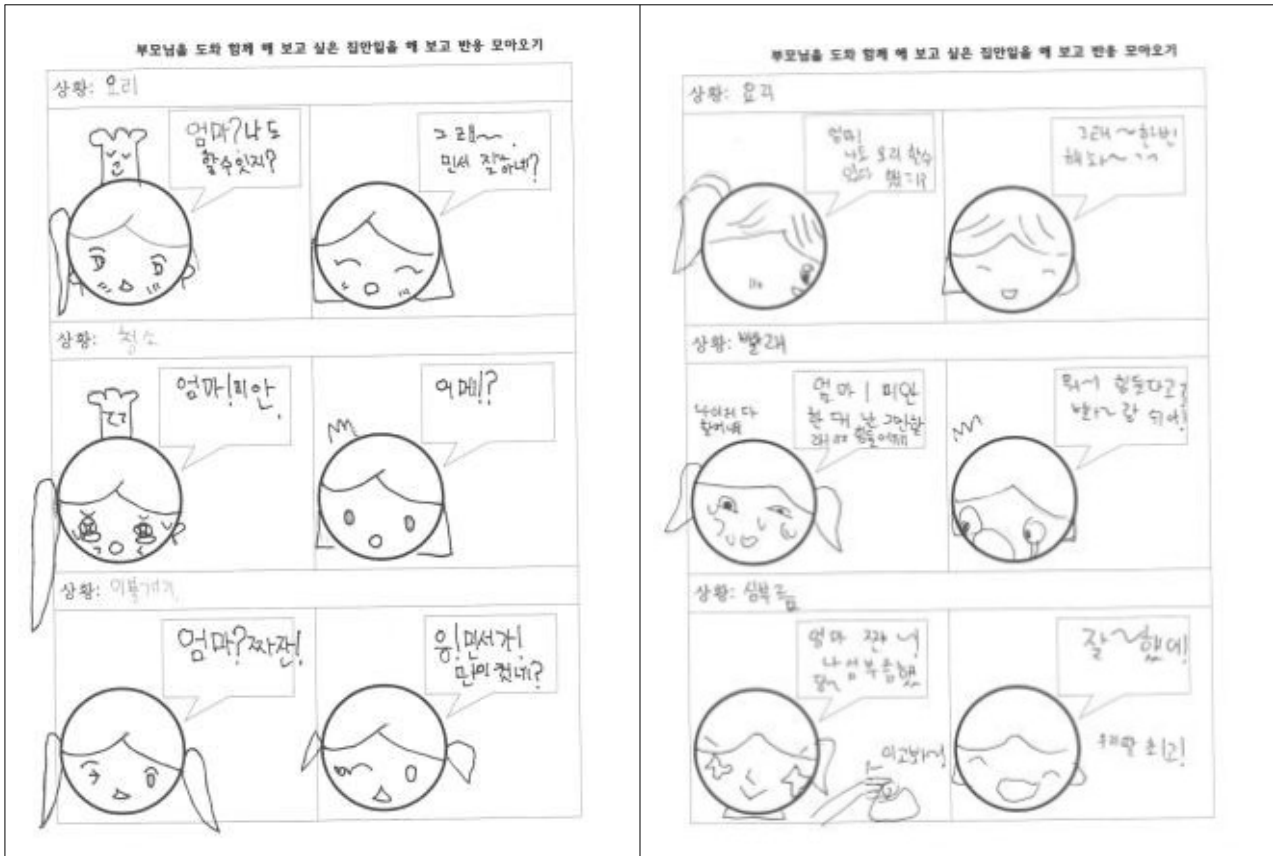
■ 내가 혼자서 해 보고 싶은 활동 정해서 활동 순서 알아보기(빈칸 채우기 활동)

- 나 혼자 할 수 있는 집안일의 종류와 그 일을 하는 방법을 차례대로 정리해 봅시다.

청소	실내화, 운동화 빨기
①(먼지)를 털고 (정리)를 한다.	① 실내화나 운동화에 묻은 (흙)이나 (먼지)를 털다.
②(청소기)나 (빗자루)로 청소를 한다.	② (물)에 담그거나 (물)로 충분히 적신다.
③(걸레질)을 한다.	③(솔)로 (비누칠)을 한다.
	④(깨끗한 물)로 충분히 헹군다.
	⑤ 물기를 빼고 잘 말린다.
빨래 개기	요리 재료 손질하기
①잘 마른 옷을 (종류)대로 나눈다.	①(손)을 깨끗하게 씻는다.
②빨래를 잘 펼쳐서 적당한 크기로 차곡차곡 갠다.	②안전한 (조리도구) 사용법을 배운다.
③(옷장)이나 (서랍)에 잘 정리한다.	③어른들이 알려주시는 대로 재료를 깨끗하게 (씻고) 플라스틱 칼로 (자른다).
	④(뒤틀림)을 한다.

■ 내가 해 보고 싶은 집안일을 실천해보고 반응 모아오기

- 스스로 집안일을 해 보고 부모님께 들었던 말과 부모님의 표정, 내가 했던 말과 나의 표정을 떠올려 반응을 모아 봅시다.



■ 활동 소감 나누기

- 집안일을 하고 난 뒤의 소감을 이야기해 봅시다.

예) 엄마에게 칭찬을 들어 기분이 좋았습니다.

혼자서도 할 수 있다는 생각에 자신감이 들었습니다.

생각했던 것 보다 어려워서 중간에 포기하고 싶었지만 엄마가 도와줘서 할 수 있었습니다.

[선택 활동]

1. '뚜쉬뚜쉬' 놀이 해보기

- 빵 반죽 촉감 놀이 해 보기

- 잘 부풀어 오른 빵 반죽에 '행님주먹'을 '뚜쉬뚜쉬' 날리는 철수의 모습을 흉내 내어 공기를 빼고 반죽을 둥글게 말아 빵 반죽 촉감 놀이를 해 봅시다.



2. 케이크 만들어보기

- 내가 좋아하는 모양으로 내 접시 꾸미기

- 종이 접시와 매직을 준비해서 내가 좋아하는 모양으로 내 접시를 꾸며 봅시다.

- 점토로 케이크 만들기

- 철수가 다음에 만들게 될 케이크의 모습을 상상하여 여러 가지 색의 점토를 활용하여 케이크를 만들고 접시 위에 올려 감상하기

